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김은하*

차 례

1. 1950년대와 기호화된 여성 그리고 여성잡지
2. 여성잡지와 젠더의 재정의
3. 한국적 발전모델과 공공의 적 아프레 걸
4. 아프레 걸의 교화 : 숭고한 사랑과 연애의 에티켓화
5. 맺는 말



이 글은 50년대 여성지의 “아프레 걸(Apre-guerre: 전후여성)” 담론을 통해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전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매개적 존재가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5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후의 사회적 분열을 수습하는 가운데 국가 근대화 방향을 정초한 시기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반근대화 내지 재전통화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었는데, 이른바 “아프레 걸”, 즉 현대여성은 한국식 발전 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과 갈등을 수습하는 가운데 초점이 되었다.

전후 여성잡지들(『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은 아프레 걸 담론을 통해 사회적 무질서 혹은 위기론을 생산해 내는 한편으로 신정조론·신연애론을 통해 성욕을 관리하며 순결한 여성상을 생산해냈다. 아프레 걸은 현대 여성의 육체

*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에 허영, 사치, 창부성, 양풍모방, 이기주의 등 온갖 부정적인 기표들이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탄생한 담론적 구성물이다. 기실 아프레 걸 담론은 미합중국 군대가 1945년 한국을 점령한 이래 형성된 식민지인의 제국에 대한 선망과 극도의 자기비하의식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우월감이 만들어낸 표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프레 걸 여성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그녀들을 매혹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로 내세운 여성잡지는 식민후기적 분열이 폭로되는 장소였다. 이 글은 여성지가 후발 근대국가의 내밀한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으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균열을 노출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50년대 여성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연구를 겸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 아프레 걸(전후 여성), 50년대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 서구적 근대화, 여성의 정조와 전통론, 연애론과 이상적인 여성

1. 1950년대와 기호화된 여성 그리고 여성잡지

이 글은 전후 발간된 여성지의 “아프레 걸(Apre-guerre: 전후여성)” 담론을 통해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기호화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5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후의 사회적 분열을 수습하는 가운데 국가 근대화 방향을 정초한 시기이다. 특히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합리적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를 병존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근대화는 반근대화 내지 재전통화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¹⁾이었는데, 이른바 아프레 걸, 즉

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 『한국전쟁과 사회 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pp.300~301. “1950년대의 ‘한국적 근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축소된 가족주의와 확대된 가족주의의 동시적 발전’을 축으로 한 ‘가족주의’의 근대적 재편, 근대적인 자원과 투입의 도시로의 집중과 집적, 신

현대여성은 한국식 발전 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과 갈등을 수습하는 가운데 초점이 되었다. 이 글은 여성지가 후발 근대국가의 내밀한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으로 어떻게 그러한 균열을 노출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50년대 여성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특히 이 글은 전후 성·연애 담론의 과잉 현상에 주목했다. 50년대 여성의 근대체험을 다룬 소설²⁾에서 박완서는 육이오 전쟁을 “길가다 강풍을 만나 치마가 활짝 부풀어 오른 계집애처럼 붕 떠오르고 싶은 갈망과 얼른 치마를 다둑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수치심”(p.37)이 겨를 만큼 여성의 관능적 욕망이 일깨워짐으로써 “오래된 조선 기와집이 표류하는 배처럼 출렁”(p.53)거리게 된 사건으로 이미지화한 바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서사적 관습, 즉 전후 여성의 성적 개방을 서구적 근대화론으로 인한 여성의 전통적 미덕의 상실로 표상해 온 방식을 패러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인수 사건”이나 “자유부인 논쟁”이 보여주듯이 50년대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시화된 여성의 욕망과 전통적인 부계사회 간의 갈등이 첨예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논의가 증폭된 시대였다.

50년대는 자유부인, 유한 마담, 여대생, 계부인, 알바이트 여성, 아프레 걸, 독신 여성, “미망인”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명명(命名)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이 기호가 된 시대이다. 자유부인과 유한 마담 등 냉소적인 지칭이 암시하듯이 ‘명명하기’는 강요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형

문·잡지·라디오방송·영화 등 대중매체의 발전에 기초한 근대적이고 미국적인 대중문화의 형성, 농촌 내 힘관계의 역전에 기초하여 도시의 미국적 근대성에 반발하는 농촌의 재전통화를 모두 포함하여 또 그것들을 핵심적 구성요소들로 삼는 것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의 근대화는 전통·근대의 이항대립적 도식을 극복하고, ‘경제적 근대화를 위한 비경제적 조건’의 형성에 주목하고, 반근대화 내지 재전통화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접근할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2) 박완서,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 2004).

속에 명명된 것을 상징적으로 감금하는 힘을 통해 지배의 도구가 된다. 개별적, 실제적 실존과 무관하게 부풀려지고 왜곡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가부장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부정적 기호였다. 이른바 50년대 식 작명법은 기실 남성의 자리를 위협해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전후의 무너진 젠더질서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50년대는 남성들의 사망과 실종으로 인한 극심한 ‘여초 현상’이 빚어지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장권이 약화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는 남성 무능의 시대와도 같습니다”³⁾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남성성이 위축된 시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50년대의 남성들은 전란과 전후의 가파른 현대사 속에서 전쟁터의 공포와 죄의식의 내상을 씻어내지 못한 채 현대적 적응을 요구받는 식민지의 거세당한 존재였다. 전쟁은 남녀 모두에게 폭력이지만, 유독 남성들이 거세불안을 호소하는 까닭은 그들이 전통사회에서 중심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당시의 공업화는 미국 독점 자본의 자기실현을 위한 체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⁴⁾ 미국문화는 전통적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일상 속에 침입했다. 남성들은 친숙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채 거대한 상실감에 허덕이며, 훼손된 주체성을 복구해야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남성의 자리를 위협해오는 여성으로 인해 남성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는 자의식에 시달리는 존재였다.

“오늘날 한국의 여성은 가정에 있어서는 말할 것 없고, 사회와 국가적

3) 임영중(국회의원), 『인격존중으로 해소』, 『여성계』 56. 4.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는 남성 무능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견잡을 수 없는 물가고는 모든 남성들의 능력을 그의 아내의 눈 앞에서 비참하게 떨어뜨립니다. 외국화폐의 가치는 외국남성을 자기 나라 남성과 비교하는 저울대는 아니건만 아무도 견잡지 못할 힘이 우리나라 남성들을 무능하게 하였습니다.”

4)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으로도 경제권을 잡았다. 상권을 잡고 정치권을 잡고, 사교권을 잡았다. 학계에도 교육권을 잡고 문학계에도 여자가 선편(先鞭)을 다 잡았다. 음악계에도 여성의 중진이 기라(綺羅) 별같이 많고 화단엔 화단대로 여류가 있고 언론계, 법조계에도 여성이 있다. 더구나 연극, 영화, 무용계는 그들의 독단장이니 애당초 말할 나위도 되지 않는다. 한국 남성들이 해방된 열 다섯 해 동안에 좌우로 갈려서 실전으로 싸우고, 북으로 납치를 당하고 전쟁에 무수하게 죽고 정당이 조직되어 정치로 싸우고, 토지 개혁이 되어 친지개혁이 되고 서투른 장사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패가망신을 하였을 때, 오직 여성들만은 아수라장(阿修羅場)같은 속에서 집안을 유지해야 하고 가계를 세워야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경험을 체험했으니 여자는 이만큼 각성했고 이만큼 투철(透徹)했고 이만큼 전진해서 오늘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제는 웬만큼, 똑똑지 못한 남성은 여인의 손에서 얻어먹고 살게 되었다. 정희 『女人天下』의 감이 있다.”-박종화, 『해방 후의 한국여성』, 『여원』 59.8, p.73.

위의 긴 인용문은 전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증언이라기보다 여성의 약진에 대한 남성의 불안과 공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글은 해방 후의 시간의 흐름을 여성의 진보와 남성의 퇴보로 규정하며, 역사라는 공적 장에서 좌절하고 가정 안에서도 전통적 위상을 박탈당한 남성의 상실감과 무기력을 드러낸다. “이제는 웬만큼, 똑똑지 못한 남성은 여인의 손에서 얻어먹고 살게 되었다. 정희 『女人天下』의 감이 있다”는 과장된 탄식에는 이념 전쟁에 대한 허무와 냉소, 헛되어 시간을 써버렸다는 자조, 역사의 실패에 대한 한숨과 눈물이 담겨 있다. 이렇듯 전후의 남성은 역사적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여성화된 모더니티의 사회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어 부유하는 존재였다. 반면에 남자들이 부재한 전시하의 후방에서 여성들은 유능한 근대적 주체로 성장했다. 먹고 살기의 욕망을 최

대의 과제로 던져준 전쟁은 여성에게 생계 담당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공사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이는 젠더를 탈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봉건적 가부장제에 균열을 냈다.⁵⁾

그러나 이렇듯 여성의 득세를 통해 남성성 상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어법은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수사학으로서, 기실 50년대 사회가 추구하는 국가 근대화의 지향이 영웅적인 남성이 주도하는 가부장적 근대화임을 암시한다. 즉, 멜랑콜리한 남자의 감수성을 곧바로 거세의 징후로 간주하는 것은 위기의 담론이 선동이자 생산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50년대 남성성 위기론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문제적인 여성들을 조종하고 가부장적 질서 안으로 통합시키는 일련의 규율담론이 형성되는 지점과 맞닿아있다. 당시 현대여성의 성(연애)담론의 한 가운데 있었던 아프레 걸은 기실 여성 젠더의 전통적 범주를 벗어난 현대여성에 대한 부정적 지칭이었다. 당대의 많은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아프레 걸의 특성이 “육체적”, “타산적”, “개방적”인 점이라고 했는데, 이렇듯 성적 개방성, 물질에 대한 추구는 기실 이타적이고 허여적인 전근대적 여성성을 거부하는 도시 여자, 즉 현대여성의 특질이기도 하다. 이 글은 아프레 걸이 전쟁과 전후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가운데 중요한 매개물로 활용되었다는 것, 즉 기실 아프레 걸이 현대 여성의 육체에 허영, 사치, 창부성, 양풍모방, 이기주의 등 온갖 부정적인 기표들이 덧붙여지는

5) 당시 여성지에 실렸던 수기는 다수의 “전쟁미망인”들로 하여금 사회가 요구하는 성적 통제를 받아들이고,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산물이었다. 그러나 “미망인”수기는 종종 그녀들을 따라다니는 연약함과 불우함의 관사를 허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편집자의 의도를 벗어난다. “전쟁미망인”들은 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자활해가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수많은 고초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고난을 통한 자기 성장을 보고한다.

과정에서 탄생한 담론적 구성물임을 밝힐 것이다.

또한 여성잡지가 아프레 걸 담론을 통해 사회적 무질서 혹은 위기론을 생산해 내는 다른 한편으로 신정조론·신연애론을 통해 어떻게 성욕을 관리하며 순결한 여성상을 생산해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50년대 사회의 식민주기적 분열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자기 주변화 혹은 자기비하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을 만큼 식민화 과정에서 서구는 매혹과 선망의 대상이어서 식민 후기의 주체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도 반식민적 민족주의 담론을 공고히 함으로써 혼성취향의 괴로운 양가감정을 은폐하려 한다.⁶⁾ 아프레 걸은 이렇듯 전통과 서구,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열증적으로 동거하는 지점이었다. 아프레 걸은 비민족으로 선언되고 격한 혐오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섹슈얼한 이미지로 치장되어 매혹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여성잡지는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주도했지만, 실제 서구적 치장을 한 부유한 여성들의 화보를 실어 시각적인 매혹감을 자아냈다. 또한 서구의 영화가 미풍양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적 논설을 싣는 한편으로 진한 애정씬을 담은 사진을 내걸어 미국영화를 선전함으로써 부지불식 간에 식민주기적 자기 분열을 폭로하고 전시했다.

2. 여성잡지와 젠더의 재정의

전통과 남성권위의 붕괴 위기 속에서 여성잡지(『여성계』, 『여원』, 『주부생활』⁷⁾)는 여성에 대한 계몽을 시도하는 가운데 해방과 전란으로 균

6) 최정무, 『미국, 무의식의 식민화, 그리고 자기 분열』, 『당대비평』(2001.봄호), pp.19~20.

열이 간 젠더 관계를 재질서화했는데, 여성잡지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50년대에 여성지는 오늘날과 같이 미장원 안에서 소비되는 일종의 “전문서적”이 아니라 대중적 문화교양지이자 시사잡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여성잡지는 크게 패션, 화장, 헤어, 다이어트 등 ‘뷰티’와 유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신세대용과, 어머니노릇, 요리, 인테리어, 부부의 성, 재테크, 연예계 관련 기사, ‘뷰티’ 등을 다루는 기성세대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아예 무이념적이거나, 여성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선전용 말을 단지 장식적인 수사로 달고 있는 것이어서, 교양인의 세계에서는 화려하지만 비친함을 면치 못하는 상업잡지로 규정된다. 그러나 50년대 여성잡지는 문예, 의식주와 건강, 자녀지도 등 어머니 역할, 현대적 부부생활, 스타스토리나 영화 소개, 명사의 칼럼, 독자상담, 시사적 성격이 강한 특집 등 그 구성이 다채로웠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 취재기사, 번역물,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잡지이자 시사적 지식 잡지였다. 필자의 다수는 잡지 기자가 아닌 사회적 명사들이었으며, 감각적이고 쉬운 대중적 글쓰기보다는 사회적 현황 제시-원인 탐구-해결책 제시 식의 논문형 글쓰기가 쓰이는 등 지식층 대중 독자에 의해 주로 소비되었다.

7) 최근 50년대 여성잡지의 주요 담론을 추출해 모은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이화형 외 편저, 국학자료원, 2005.)이 총 8권으로 출간되었다. 편저자들은 종전에서 제2공화국에 이르는 시기동안 발간된 대표적인 여성잡지는 『여성계』, 『여원』, 『가정』, 『새가정』인데, 『새가정』은 기독교인들의 교양증진을 위해 발간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의미의 대중적인 여성지는 『여성계』, 『여원』, 『가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실 『주부생활』(59년 9월부터 『여성생활』로 제호 변경) 역시 발간기간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50년대를 대표할만한 잡지이다. 당시 여성지의 상당수는 분실되어 『여원』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각 잡지의 구체적인 발간 시기, 판매부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이 글은 아프레 걸을 중심으로 한 성담론을 고찰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각 잡지의 성격의 차이를 세밀히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여성지 중에서 『여원』은 담론의 수준이 높고, 편집이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명실상부한 50년대 대표 여성지로서 여성독자만이 아니라 남성지식인들에게도 읽혔는데, 이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68년 1월 당시 젊은 기자였던 김병익은 과거의 『여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현재의 타락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여원』이 “일본의 여성지들보다 더 건실하고 우리 사회와 여성들에게 더 바람직한 형태로 보였으나”, 판을 크게 내면서부터 문제성이 없어졌는데 잡지의 크기와 부피, 화보, 그 안에 담긴 요리, 옷, 패물이 부담스러우며, 사실에 충실하기보다 인생파적 감상을 유도하는 글들이 많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여성지가 외양은 여성 같지만 자기성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충고한다. 이렇듯 『여원』이 “외양은 여성 같지만 자기성별에 집착하지 않는”⁸⁾ 잡지로 간주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당시 주부의 계획성 있고 규칙적인 생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생활개선의 필요성은 국가 근대화와 관련해 논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대적 가정과 현대적 주부는 계몽된 국가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지는 공공적 가치가 있는 매체로 여겨질 수 있었다. 여성잡지는 근대적 스위트홈의 미덕을 선전하고 적극

8) 김병익(동아일보기자),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여원』 68. 1, p.110. 『여원』은 55년 10월에 창간되어 1970년 4월 통권 175호로 종간되었다. 50년대 『여원』의 편집 후기란은 여원이 발간되자마자 동이 나듯 팔렸고 독자의 인기에 힘입어 증면을 거듭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여원』의 대중적 인기도를 추측하게 한다. 독자투고란에는 『여원』만의 선명하고 세련된 표지와 화보에 대한 칭찬이 실려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당대 여성들의 회고에 따르면 『여원』은 지식여성의 대표적인 잡지였다. 그러나 김병익의 지적대로 『여원』은 60년대에 들어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지 않는 상업주의 잡지로 변모해간다. 광고지면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물론이고, 뚜렷한 편집방침을 찾을 수 없으리만큼 기사는 사소화하거나 서로 간의 관련성이 없었다. 한국미의 재발견시리즈나, 고향탐방 등 지역과 전통에 관련한 기사가 과거 여원의 시사 잡지로서의 흔적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기실 그것 역시 낡은 것을 소비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적이면서도 생활력 강한 현대적 가정주부상을 창출하는 등, 일상을 근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산층 지식계층의 욕망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했다. 그러나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신속하게 생생해냄으로써 시사잡지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여성잡지는 현대여성의 성(연애)담론을 시대적 토픽으로 채택함으로써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여성잡지는 댄스홀, 미국 영화, 아베크 족 등 근대적이고 미국적인 도시문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형성된 감각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대여성을 전후 서구화·현대화된 삶에 은닉된 위험을 암시하는 표상으로 재현했는데,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개방성은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 예로, 『여원』 55년 10월 창간호는 의식주 생활개량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현대여성의 성담론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 집중적으로 여대생들의 연애와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대여성은 지성을 상실했는가」, 「왜 그들의 정조는 법이 보호 못했나」라는 ‘박인수 사건’ 관련 논설이 발행인의 창간사 다음 페이지에 실려 있을 만큼 성담론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특집 「연애와 인생」, 좌담회 「학생시대의 연애가부(可否)론」에서 사회적 명사들은 젊은 여성의 성/연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는 전후 여성지의 성격에 큰 변화가 왔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해방 공간의 여성지가 “부인운동”의 장을 겸하며 문학적 읽을거리를 비롯한 오락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전후 여성지들은 주로 특집란을 중심으로 긴장감과 선정성을 짙게 풍기는 제목을 달고 서구화의 결과 여성이 타락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⁹⁾ 따라서 이제 여성에 대해 말한다는

9) 여성지 특집란의 큰 제목은 다음과 같이 주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으로서 선정성에 따른 긴장감을 짙게 풍겼다. “성도덕의 생태 재검토”, “비판대에 오른 현대여성의 재반성”, “오늘의 매춘문제 비판”, “오늘의 정조문제 비판”, “새로운 성모랄을 찾아

것은 서구화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 혹은 주체적 근대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지 발행의 목표가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보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계몽에 두어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비록 여성을 사적 영역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지는 부부 간의 사랑과 존중을 유도하고 주부 노릇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 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근대적 생활개량은 여성의 여가 시간을 늘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조명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지는 무엇보다 타락한 여성들을 교정함으로써 가부장적 근대화를 정초하는 데 협력했다. 여성지들은 여성의 “교양”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발간되었는데, 박마리아에 따르면 여성의 교양 혹은 교양미는 일상을 합리적으로 근대화해 나가되, 전통적인 여성미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한 나라의 문화는 언제나 고유한 것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소화하고 또 건설하는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 고유의 문화(여성을 위한 풍속)을 유지하도록 특히 오늘날같은 혼란한 세태에서는 장차 선도층이 될 젊은 여성들이 이 방면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되겠다”¹⁰⁾라며 여성잡지 혹은 여성지식인의 역할을 밝혔다. 발행인 임영신 역시 『여성계』 창간 5주년 기념호에서 여성독자에게 “특히 외래풍이 가장 많이 범람하고 있는 요지음에 있어서 지나친 사치를 삼가야겠습니다.”¹¹⁾라고 호소했으며, 대담 「여성문화를 말함」에서 한국여성이 개인 점이 많으나 “그 깨었다는 것이 미국의 천박한 면부터 배우는 것같애 한심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

서”, “여성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대 여성의 긴급동의” 등이 그 예다.

10) 박마리아, 『미국풍속과 그 소비책』, 『여성계』 56. 5, p.73. 이 글은 풍속의 미국화를 우려하며 여성의 댄스홀 출입과 노출이 많은 의상을 비판하고 있다.

11) 임영신,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계』, 56. 11, p.27.

성계몽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껴집니다”라고 밝혀 여성지 발간의 목적이 천박한 미국문화를 쫓는 사치스러운 여성의 계몽에 있음을 암시했다. 『주부생활』의 사장 최혁길 역시 『창간 1주년을 맞는 새해에 즈음하여』에서 “몇 사람 뜻있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지음의 세대(世態)를 개탄하던 실마리가 가정주부의 생활문제에 미치게 되자 실상 그녀들에게는 참다운 벗이 되며 지혜의 보물이 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 야릇한 의분심을 느끼게”¹²⁾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 가정주부에 대한 계몽이 잡지 발간의 계기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50년대 여성지는 이렇듯 여성·여성성에 대한 재정의의를 통해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문란해진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으로 성역할 규범을 재강화했다. 근대적 스위트홈의 이상이 출현하면서 여성은 현대적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 50년대는 여성에게 ‘가정으로의 귀환’ 명령이 내려진 시기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축출되어 가정부인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³⁾ 여성의 경제활동은 전란이 가져온 극심한 가난, 전후 장기간의 인플레이 탓에 적극 권장되었다.¹⁴⁾ 『서울의 지붕 밑』(『여원』 56.10.)이라는 제호의 기사는 회

12) 최혁길, 『창간 1주년을 맞는 새해에 즈음하여』, 『주부생활』 58. 1, p.57.

13) 루스 밀크먼 지음, 전방지·전영애 옮김, 『젠더와 노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전후 가정 중심의 가치가 부활함으로써 여성들의 일부는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작업장에 남아 있었다. 전후 여성노동의 특징은 성별 분리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시의 여성 동원은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리를 일시에 파괴했고, 여성들은 기초 산업 내의 ‘남성 직무’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해 낼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지만, 자본주의 기업들은 값비싼 남성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전통적 여성직무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된다.

14) “여성이 어떻게 가정살림을 일으켰는가”(생활수기),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여성 좌담), “여성의 생활력과 행복의 장기계획”(특집), “부부가 같이 벌도록 하자”(논설) 등 일하는 여성에 관한 기사는 빈번히 등장한다. 이 중 좌담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여성계』, 59. 4)는 “미망인”, 가정부인, “노처녀”가 직업적으로 성공하

사와 학교로, 관청과 반찬 가게로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 두 쌍과, 남편을 유학 보내고 인형제작을 하거나, 감옥에 간 남편 대신 재봉일로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 여성가장들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노동은 남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 여성 자신의 필요나 욕망충족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여성 노동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일 때만 가치가 있었다. 가정은 여성의 제일차적 장소였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바깥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부업이 권장된 데 비해 직장 여성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¹⁵⁾ 특히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은 남성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남성화된 여성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독신여성은 ‘가정성’ 바깥에 서 있다는 이유로 이기적이거나 우울증을 앓는 존재로 재현되기 십상이었으며, 전쟁 고아나 소외계층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¹⁶⁾

여성잡지 발간의 주체 다수가 여성이었지만,¹⁷⁾ 특집·논단 등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란의 필자들은 대체로 성공한 남자였다. 이들의 신분은 교수, 문인,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 교장, 교사, 종교인 등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했는데, 이는 이질적인 목소리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 아니었다. 당시의 여성잡지는 전문가 체계가 자리를 잡지 않아, 의료·법률과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까지의 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여성독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15) 특집 『직장을 가지려는 여성에게』, 『주부생활』 59. 4. 직장여성에 관한 기사에는 여성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또한 직장은 탈선의 장소로 그려져 여직원을 유혹하는 상사와 뒤늦게 임신하고 후회하는 직장여성의 고민에 관한 기사와 수기가 종종 선보였다.

16) 사실 전후는 여초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독신여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의도적으로’ 간과되었다.

17)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성계』의 발행인은 임영신이고 편집주간은 조경희였으며, 『주부생활』의 편집주간은 최정희였다. 또한 세 잡지의 편집기자의 상당수는 여성이었다.

성공한 남성들 누구나 필자가 되어 여성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신분과 ‘말씀’은 남성이라는 특권적 위치와 결합해 일상 속에서 가부장적 규범들을 자동적으로 형성해내며, 남성을 발신자로 여성을 수신자로 위치지었다. 반면 여성필자들의 대다수는 친정부적 여성 명사이거나, 패션, 미용, 편물, 산부인학 등과 관련된 ‘특수직’ 전문가로 정보제공자에 머물렀으며 다수의 여성들은 수기·수필·독자투고란과 같이 비중이 낮은 지면이나 문예란 같은 특수한 영역을 담당했다. 이러한 잡지의 구도와 체계는 그 자체로 가부장적인 배치라 할 만하데, 특히 상담란과 독자편지란은 대체로 잡지와 독자 간의 관계가 위계화·젠더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란에서 여성들은 순결을 잃은 여자, 첩, 불륜녀, 남편의 외도에 마음을 끊이는 고민녀로 등장하고, 남성 교수나 문인이 진리판단의 주권을 쥔 상담자가 되어 여성을 교화하고 인종의 미를 설파했다. 또한 ‘독자 편지’란의 독자는 잡지와와의 관계, 즉 권위 있는 필진과의 관계에서 저자세를 취했는데 이는 당시 여성지가 다양한 발언이 경합하는 장이 되거나, 비판적 독자를 키워내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3. 한국적 발전모델과 공공의 적 아프레 걸

전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존재가 바로 ‘아프레 걸’이다. 조풍연에 따르면 원래 아프레 걸은 “제이차대전 후 사회의 혼란, 빈곤, 불안, 공포, 반항, 폭력, 파괴, 무정견을 거쳐서 구질서에 반항하고 방황하는 한 때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불어 아쁘레 게르에서 온 말”¹⁸⁾이지만 한국에서 아프레 걸로 여성명사화하면서 미국의 퇴폐적

18) 조풍연(한국일보 기획위원), 『아프레 게르와 처녀성』, 『주부생활』 59. 4, p.224.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정조관념이 없고 물질주의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특히 아프레 걸의 육체적 타락이 부각되어, “아프레는 그 원의가 가지는 ‘새로움’보다는 다분히 오늘날 와서는 부도덕함ियो. 지나친 육체 해방파에 속하는 불건전한 사조”¹⁹⁾로 여겨졌다. 구체적으로 아프레 걸은 도시에 사는 십대후반이나 이십대의 여대생으로서, 물질적 향락을 위해 돈 많은 중년남자와 연애하고, “보이푸렌드”와 섹스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쿨” 하고, 서양풍으로 한껏 멋을 부린 사치스러운 존재다. 그러나 아프레 걸은 객관적 지시대상이 뚜렷하기보다는, 소문과 상상 속에서 가공되고 부풀려진 존재였다.²⁰⁾ 여성 잡지들은 특집 등 비중이 높은 지면을 통해 아프레 걸의 타락한 “생태”를 비판하며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고백수기, 「여대생은 밤에 나온다」식의 르포성 취재기, 가십성 기사나 코너를 통해 아프레 걸의 성적 방탕을 선정적으로 묘사했지만, 그것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창작성 기사에 가까웠다. 이렇듯 아프레 걸의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채 담론은 과잉화되어 바람난 “전쟁 미망인”, 자유부인(유한 마담), 유엔 레이디, 계 마담, 알바이트 여성, 독신 여성, 고학력 직장

19) 광종원, 「명랑 활발을 아프레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여원』 56. 10, p.72.

20) 아프레 여성에 대한 글들은 대개 소문을 사실화하는 식으로 쓰여져 있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필자의 눈에 띄우는 아프레 기질 중에서 가장 들어나게 느껴지는 특징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에 잠깐 소개하겠다. 어느 여자대학생이 돈많은 어느 사내와一年이 넘도록 열렬한 연애를 하였는데 그 남자만큼 자가용 세당차를 가졌고, 그 차를 자기 손수 운전하는 현대적인 교양을 갖추었고 얼굴도 상당히 미남이며 식사는 반드시 양식 취미는 팬스, 돈도 물쓰듯하고...이만하면 현대여성으로 반할만도 하렸다. 그래서一年 동안을 사귄 끝에 정작 결혼을 하려고 그 여자쪽의 가정에서 남자의 정체를 알아본 즉 틀림없는 총각은 총각인데 어느 부호집 자동차운전수였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어쩐지 이즈막 여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으로 이 년센스의 여주인같은 부류의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정병욱(고대 교수), 「무쇠라도 녹일 정열을 가져야, 『여성계』 57. 1, p.63.

여성 등을 지칭하는 말로 외연을 확장해 가기도 했다.

50년대는 이렇듯 타락한 여성의 호명을 통해 “제도적인 근대화와 가치에서의 ‘전통’ 지향이라는 ‘한국적’ 발전 모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²¹⁾ 성적 타락은 무분별한 양풍모방의 징후로서 전통의 위기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시기 특유의 지배적인 서사는 아프레 곁의 등장을 해방 후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서구문화의 왜곡된 이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자, 전통적 미덕이 파괴된 징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도회지의 일부 젊은 여성들의 지나친 몸차림과 육체적인 자유주의”는 “8·15 이후 물밀리듯한 구미의 풍조를 소비하지 못한 채 모방하는 폐단에서 오는 과도기적 행동”²²⁾이라는 식의 해석은 팔일오 해방에서 육이오 전쟁에 이르는 근대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개방으로 표상함으로써 여성의 순결을 전통적 가치로 재규정했다. “원래 이 나라는 예의엄치에 밝은 동양군자의 나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되었는지 거리에는 창부가 범람하며, 유부녀는 간통을 다반사로 삼고, 소위 여자 대학생이라는 처녀들은 불량배와 작반하여 『팬스홀』 출입이 빈번한 나머지는 여관 투숙을 예사로 하고 있다”²³⁾는 식의 주장, 즉 현대여성의 “육체적 난행”이 “예의엄치에 밝은 동양군자의 나라”의 전통적 미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법은 한국의 근대화가 반근대화내지 재전통화를 포함하는 과정이며, 여성의 성적 육체가 서구화와 관련한 온갖 사회적 부정성을 흡수하고 조정하는 장임을 암시한다.

이렇듯 전통론의 부각은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

21)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삼인, 2000), p.116.

22) 곽복산(학원장), 『여성의 해방과 자유』, 『여성계』, 56. 8, p.116.

23) 이건호(고대교수), 『처녀순결론』, 『여원』 55. 11, p.32.

했음을 의미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 미국은 선린우방의 이미지였지만, 전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물질적 풍요의 표상인 다른 한편으로 경박하고 타락한 문화의 표상으로 부각된다.²⁴⁾ 50년대 사회의 미국에 대한 의식은 극도로 분열증적이었다. 기실 50년대 사회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서구지향적인 시기였다. 국가는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원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명지식인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미국문화에 대한 선망은 일상문화를 서구화했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적인 것은 낡은 것이고 악한 것으로 규정되었다.²⁵⁾ 이렇듯 한국적인 것이 혐오와 열등의 기호가 됨에 따라 신생국가로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환으로 전통의 신화가 창출되는 등²⁶⁾ 지배권력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유의 전통이 지니는 효용에 착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레 걸 담론은 미국에 대한 식민지인의 선망의식과 극도의 자기비하의식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우월감이 만들어낸 표상이었다. 무엇보다 아프레 걸이라는 이국적 명명법은 서구와 민족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프레 걸은 순결한 민족공동체를 해치는 무질서로 재현되었다. 특히 “한손에는 영어강습손가 뭐가 하는데서 쓰는 영어책을 들고 또 한손에는 「스크린」이니 「무비」니 하는 영화배우들의 사진이 가

24) 장세진, 「전후 아메리카와의 조우와 ‘전통’의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이 글은 50년대의 담론의 장에서 “아메리카라는 표상을 둘러싸고 이전의 식민지 시대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어떤 거대한 전환과 비약의 국면”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50년대 전통론의 등장을 “‘아메리카’라는 기표의 독립성, 아니 그 기표의 ‘(의사)독립성’과 “‘특수자’로서의 ‘우리’라는 상상력의 도식”과 관련해 설명한다.

25) 김경일, 「1950년대의 일상생활과 근대성, 전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백산서당, 2003), p.197.

26) 김경일은 전통과 근대에 대한 정치권력의 인식이 상호배제적이고 일면적인 것이었다고 해서 지배권력에게 고유의 전통이 아무런 효용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전국 활쏘기 대회, 장사 씨름대회, 시조대회, 과거시험 재현 등의 관제 행사에 주목한다.

득찬 영어잡지를 들고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남자를 꼬셔 외국유학이나 가려하며, 댄스홀을 드니들며 서양인을 흥내낸다고 비판받는 등 아프레 걸을 수식하는 말들은 화려한 이국성의 기호들이었다. 그들의 육체 역시 “미끈미끈한 다리에 탄력 있는 엉덩이, 날씬한 허리에 뿔룩하게 나온 앞가슴” 등으로 묘사되며 풍만한 서양여성과 비교되었다.²⁷⁾

다른 한편으로 아프레 걸은 물질적 쾌락주의자로서 허영과 사치의 표상이었다. “이즈막 여성들이 남자를 보는 각도가 그 남자와 사랑한다면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자동차를 가졌는가, 은행의 당좌잔고가 많은가, 양식을 사줄 수 있는가, 댄스홀에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등속부터 먼저 따지고 드는 것 같아 보인다. 교양이나 인격은 부수적인 조건이요 남성의 정열을 물질로써 표시할 수 있는 곳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이것이 아프레 기질의 새로운 타입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인상을 받는다”²⁸⁾는 서술은 이를 증명한다. 사치는 여성성과 결부됨으로써 물질적 추구 자체가 공공의 선을 해치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사적영역/개인/소비는 근대적 주체의 정립 과정에서 추방되고 억압되었다. 그런데 기실 아프레 걸, 즉 현대여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전후 극심한 개인주의 풍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니 큰 것을 잊고 적은 것을 위해 혈안이 되고 공보다 사를 위한 생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은 호구지책에서만 아니라 향락과 허영의 본능을 마음대로 만족시키기에 급급하여 국책에 어긋나는 밀수품 수입에 찬조자가 되어”²⁹⁾갔다는 논설은 이를 증명한다. 아프레 걸은 무엇보다 값비싼 수입품이나 사치성 의복을 사들이는 중산층의 과시적 소비자들로 재현되었

27) 문재안, 『아프레 걸의 생태-해방된 육체(肉體)』, 『여성계』 57. 5, p.148.

28) 정병욱(고대 교수), 『무쇠라도 녹일 정열을 가져야』, 『여성계』 57. 1, p.63.

29) 최이순, 『육이오 사변을 통하여 여성은 무엇을 배웠다』, 『여원』 57. 6, p.62.

다. 여성잡지들은 빈번히 사회명사들이 참여한 좌담회를 열어 여성의 교양 있는 멋내기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펼치며 아프레 여성들의 사치 풍조를 비판했는데, “몸빼로부터 해방되자 들어온 베르벳드, 나이론 양단의 유행은 여성을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올 정도였다. 당시 만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질타하는 글 중에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의복 중에는 대체로 화려한 수입품이 많은데, 이들의 부패 뒤에는 실상 절제할 줄 모르고 허영심 강한 아내가 있다는 추측성 논설이 실리기도 했다.

“한국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과 같이 중첩하는 대 변동기를 겪은 적은 일찍이 없을 것이다. 八·一五 해방과 더불어 各人의 개성을 존중히 여기며 各자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民主主義의 도입으로 인한 사상적 변천은 우리들의 생활철학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급변 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六·二五 동란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정을 잃은 우리민족은 크고 긴 높은 생활목표보다는 눈 앞에 보이는 現實的인 卽 瞬間的으로 즐길 수 있는 값싼 享樂에 만족을 느끼는 경향에 몰들어 버렸다. (중략) 사치도 내자유, 성생활도 내자유, 큰소리로 백주에 떠들면서 첨단의 걸음으로 길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범람해 있다. 그 자유가 민족과 국가의 이해와 상반 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 이태영, 『현대여성은지성을상실했는가-현대여성의정조관념을검토한다.』, 『여원』 55.10, p.26.

이태영은 “박인수 사건”과 관련해 현대여성의 정조 상실을 비판하면서 전후 서구적 민주주의와 함께 유입된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의 위험을 여성의 성적 방종으로 표상하고 있다. “사치도 내자유, 성생활도 내자유”라고 외치는 타락한 여성에 대한 비판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된 “사회성 내지 공덕심의 상실”을 경계하고 사회윤리를 세우

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전쟁은 박경리의 『불신시대』가 보여주듯이 명분과 예의를 중시하던 종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실용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했다. 전쟁의 아수라가 휩쓸고 간 후 찾아온 허무의식은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을 찰나주의자가 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자기의 구원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³⁰⁾ 절박한 생존의 욕망에 비해 엄치, 예의를 따지는 것은 정신의 허영으로 여겨졌으며, 치부나 성공을 위해 부정을 서슴치 않아 ‘빡’과 ‘돈’과 ‘사바사바’를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국가재건은 사회윤리를 바로잡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소비는 서구화에 따른 왜곡된 문화로 규정되었다. 특히 사치풍조의 원흉으로 여성이 지목되고, 이것이 다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결부되면서, 여성 혹은 여성성으로 젠더화된 소비는 무절제한 욕망이나 개인주의를 함축하며 생산과는 대척적인 자리에 위치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적 가치에 대한 위협을 뜻하게 되었다.

4. 아프레 걸의 교화 : 숭고한 사랑과 연애의 에티켓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50년대는 현대여성을 창부회함으로써 가부장적 근대화를 시작했다. 사회 명사들은 공통적으로 “소위 『아쁘레·게일』이란 것이 시민 생활을 불안에 빠뜨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절망감을 주는 경우가 많”은 등 “폭행과 범죄가 속출하”³¹⁾게 만들기조차 하는, 사

30) 정상환,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pp.33~38.

31) 조풍연, 『새로운 성모랄을 찾아서』, 『여성계』 57. 5, p.140.

회적 혼란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아프레 여성들의 분방한 섹슈얼리티, 즉 성모랄의 부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아프레 여성관으로 하룻밤 잠자리를 갖더라도 그들은 사람의 심장을 뿔아 버리지 않은한 영원으로 이어지는 애정의 부수를 거부할 수는 없”³²⁾다며 남성을 아프레 여성의 성적 유희의 희생물인 양 간주하기조차 했다.³³⁾ 아프레 걸 여성을 유희적 색녀화하는 이러한 논법은 이른바 50년대 아프레 걸이라 할 수 있는 “박인수 사건” 관련 여성들에 대해 법원이 “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³⁴⁾는 유명한 판결을 내리고, 일부는 박인수를 피해자화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50년대 사회는 성모랄을 강조하며 남녀 모두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권했지만, 기실 정조는 여성의 모랄이었다. 여성의 정조는 국가 발전의 바로미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전후파적인 위험사상에 몰들어 철없이 날뛰는 일부여성들”이 “건강한 부분까지를 침식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의 모랄, 즉 여성의 정조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몸을 가족과 공동체의 귀속물로 간주되었음을 암시한다. “한 나라가 건전하고 아름다우려면 먼저 그 나라의 여성들부터가 아름답고 건전해 그 정신 아래 개인과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이러한 가정이 모여 이룩한 사회 또한 건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³⁵⁾다는 서술은 50년대 사회에서 진리명제로 통용되었다.

32) 김우중, 『현대 남성이 요구하는 여성의 정조관-정조는 한 남성에게만 주는 애정의 윤리』, 『여성계』 58. 4, p.94.

33) 이어령, 『사랑 喪失에의 항변』, 『여원』 57. 7. p.180. 이어령은 아프레 여성의 사치, 유행에의 추종, 육의 개방, 생활의 구속과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등이 기실 전쟁의 상흔을 말소하기 위한 “역설적 향락”, 즉 일종의 위악적 행동이라고 함으로써 그녀들을 창부화하는 지배적 담론과 거리를 두었으나, 이들의 행위를 전후 우울증의 징후나 일탈로 간주함으로써 가부장제와의 갈등에 담긴 전복적 의미를 무력화했다.

34) 권순영, 『왜 그들의 정조는 법이보호못했나』, 『여원』 55. 10, p.108.

35) 전숙희, 『현대 여성이 요구하는 남성의 정조관-제3의 정조관』, 『여성계』 58. 4, p.89.

이렇듯 정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새시대의 연애론이 등장했다. 연애론의 과잉 현상은 주목할만한데, 이른바 사회적 명사들은 각종의 죄담이나 논설을 통해 건전한 연애와 데이트에 관해 논했다. 그들은 연애에 관한 학적 고찰에서부터 “애인으로부터 키쓰의 권유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새시대의 연애문화를 정초하는 역할을 했다. 연애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팔이오 해방 이후 유입된 미국문화로 인해 더럽혀진 민족이 순결하게 재생하기 위한, 즉 민족의 집단적인 정화를 꾀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기획하는 중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아프레 걸로 지칭된, 서구화된 현대여성들을 조정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규범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자유연애란 멋진 말을 배운 것은 갑오개혁이후였다면 8.15민족해방은 남녀평등권이란 정치적 구호와 함께 여성해방을 위한 또 하나의 위대한 모멘트를 이루는 것이었다”³⁶⁾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애와 남녀평등이라는 박래품이 주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정조라는 봉건적 성윤리가 부여될 필요가 있었다. “구미(歐美)의 부박한 향락지상주의” 같은 사랑은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초진보적인 행동”이자 “사랑이라기보다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종의 장난에 지나지 않”³⁷⁾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조를 더욱 지켜야 한다는 언술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김기두는 “생활을 위하여 수천환 또는 수백환의 화폐와 간단히 교환되는 양공주의 정조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육체적 향락을 위하여 무심코 던져주는 아뿌레 여성의 정조 또는 허영의 댓가로서 지불되는 소위 값싼 소위 명동숙녀의 정조, 타오르는 중년의 정욕에 사로잡혀 분별없이 배급되는 소위 마담족의 정조”를 들며, “정조를 생

36) 윤병로, 『연애지상주의에 대한 의문』, 『여원』 59. 5.

37) 이인희(동덕여대강사), 『진정한 사랑은 강력합니다』, 『여원』 58. 6, p.238.

명과 같이 아껴온 우리의 선조들”과 “정조를 헌신짝과 같이 버리는 오늘날의 그 자손들”³⁸⁾을 대조했다.

이렇듯 서구식 자유연애와 조선식 정조의 기괴한 결합이 빚어낸 모순과 허위를 봉합해낸 것이 바로 숭고한 사랑의 담론이다. 당시 사회명사들에 의해 쓰여진 수많은 연애론은 “진실한 연애와 도취에 잠기는 일시적인 연애”(조매리, p.214), “사이비 연애(노천명)와 진정한 연애”. 위대한 연애와 자유연애란 연애 유희(윤병로)라는 이분법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정석이었는데, 진정한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신적인 데 있었다. 극도로 정신주의적인 연애론이 등장하면서 욕망은 관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연애론은 결혼 후에야 육체적 교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혼인중심주의와 결합해 성과 연애를 분리했다. 주요한은 연애란 “성의 신비경을 깨끗한 정서로써 추구해가는데 있어서 발전 과정을 빠짐 없이 밟아가는데 고상한 쾌감을 느끼는 이성간의 상관관계”로서 “연애가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수단화되며, 결혼을 무시한 것은 하나의 유희에 불과하게 되므로 “결혼의 가능성을 다분히 함유하면서 그것대로의 절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³⁹⁾이라고 했다. “참으로 사랑을 소중하게 아는 이는 그 사랑을 결혼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따라서 완전한 결합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육의 충동을 억압하려고 하고 또 억압할 수 있는 것”⁴⁰⁾이라는 인식은 자리잡아갔다.⁴¹⁾

진정한 연애와 불순한 연애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도색성’이었다. 사회명사들은 성애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마침내 그

38) 김기두, 『여성과 정조』, 『여원』 58. 11, p.160.

39) 주요한(시인·새벽사 사장), 『연애와 직장』, 『여원』 56. 4, pp.53~57.

40) 오화섭(연대 교수), 『연애와 욕망』, 『여원』 56. 4, p.53.

41) 50년대는 스위트 홈의 조건으로 부부의 원만한 성생활을 꾀는 언설이 등장하는 등 여성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정했지만, 미혼 여성의 성은 극도로 규제되었다. 연애론은 기실 미혼 여성의 성적 욕망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것을 잊어버리는 곳에까지 도달하는데 연애의 상승과 비약의 고귀성”⁴²⁾ 이 있다고 하였다. 이현구는 “연애는 인간정신의 정화이다. 여기에는 끝없는 노력이 따른다. 불덩어리와 같은 정열로 사랑하는 사람의 심신을 녹여 버리고야 마는 강열성도 필요하지만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끝까지 꺾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다가 떠난 후면 기리 마음 속에 그 자태를 그릴 수 있는 서정과 이성이 필요하다”⁴³⁾며 연애의 미추를 성적 욕망의 문제와 결부시켰다. 진정한 연애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조건으로 탈물 질성이 제시되었다. 김광주는 “현대여성들은 연애를 결혼의 전제조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극단 방법이거나 심하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힘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⁴⁴⁾고 지적하며, 물질주의를 배격할 때 연애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연애는 남녀의 극도로 아름다우며 숭고한 정신적 결합으로 신비화, 추상화됨으로써 육체와 성은 연애의 불순물로 지목되었다. 연애는 종교적 고행에 버금가는 신성한 것으로 추앙되었다. 따라서 현실과의 연관관계가 멀수록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독신으로 산 “여류”시인 노천명은 “진정한 연애에 있어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며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받으랴고 안 하는 희생적인 것”으로서 현실의 온갖 고난을 초극할 수 있는 “일종의 훌륭한 종교”⁴⁵⁾인데, 그 숭고함의 극치를 짝사랑이나 플라토닉 러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독신생활이 사랑의 지극하고도 완전한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서 성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육체를 배제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숭고한 사랑, 즉 정신적 가

42) 조지훈(시인·고대교수), 『연애미학서설』, 『여원』 56. 4, p.28.

43) 이현구(평론가), 『연애와 인생』, 『여원』 55. 10, p.161.

44) 김광주(소설가), 『연애·고민·이기』, 『여원』 56. 4, p.37.

45) 노천명, 『연애는 반드시 결혼의 전제여야 하나』, 『여원』 56. 4, p.41.

치는 여성성의 내적 자질과 결부되어, 서구의 문학텍스트 속의 여성주인공들이 대표적인 사랑의 아이콘으로 등장했으며, 사랑론은 낭만적이고도 수사적인 요소가 강해 문인들이 주된 집필자로 등장했다. 정신으로서의 연애는 남녀 모두에게 성적 죄의식을 심어줬지만, 특히 연애의 진수는 무성적인 여자의 순결한 육체와 완벽한 이타성에 있었기 때문에, 연애담론은 아프레 곁들의 훈육 장치로 활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지는 에티켓 강좌나 기사를 통해 사교법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들려주는 지침서로서 새로운 역할을 창출했는데, 「당신의 연애를 성공시키는 비법」 「당신의 데이트를 인상 깊게 하는 법」 「이성간 교제의 맹점과 지침」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하나」 「약혼 기간의 남녀 사교법」 등이 그것이다. 데이트의 기술과 예법에 관한 담화 역시 “아무래도 이성간의 친구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도 때때로 욕정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수도 있고 우정으로서의 성실과 순수성을 잃고 파탄을 일으킬 때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려(思慮)깊은 행동으로 교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욕망제어장치였다.⁴⁶⁾ 에티켓화한 연애는 세밀하고도 까다로운 지침을 통해 일상 문화 속에 가부장제적 질서를 구현해냈다. 사교법으로서의 연애는 성별에 따른 역할과 규칙을 발명하고 학습하게 했는데, 이를 테면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그 여자에게 데이트를 청할 수 있”지만, 여자는 “농구시합 입장권이 있으니 같이 가고 싶다고 제의하여서는 안”되며, 남을 통해 “저를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소식을 듣고 싶은데요”⁴⁷⁾라고 말해야 했다.

이렇듯 숭고한 연애론과 에티켓화된 연애론은 세련되고 효율적인, 욕망 규제의 장치로서 상호보족물이었다. 에티켓화한 연애는 추상적인 사랑의 담론이 일상의 장에서 지켜지게 하는 장치였으며, 사랑의 담론은

46) 전규태, 『데이트의 자유와 기술을 주라』, 『여원』 60. 8, p.236.

47) 김용은 역, 『당신의 데이트를 인상 깊게 하는 법』, 『여성계』 58. 2, p.169.

지루하고 까다로운 법칙이 되어버린 연애에 낭만적 감정을 부여했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다. 양자는 모두 욕망의 승화나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연애를 ‘명랑하고 진실한 남녀의 사교의 시간’으로 만들어갔다. 숭고한 사랑의 이상은 남녀관계의 유희성을 제거하고 진실성을 부여하며, 사교법은 남녀관계를 “명랑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것은 결국 여성들에게서 성욕을 박탈하는 것이고, 남녀 관계 안에서 여성을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로 객체화하는 것이었다.

R 신부님.

신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사랑하는 여인, S가 있습니다. S와 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앞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S와 결혼하고 싶지만 저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당분간은 결혼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터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성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더라면, 저의 품행은 좀더 방정해지고 또 고민도 아주 적어졌으련만, 불행히도 성욕은 결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수시로 느끼게끔 마련입니다.

S와 단 둘이서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천사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떠받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면, 그 천사를 으스러지도록 힘껏 내 품에 껴안고 마음껏 학대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풀 길 없는 성의 고민』, 『여원』 60. 3, p.224.

이 고백의 편지는 성적 욕망에 시달리는 무명의 고민남이 신부님에게 보낸 것으로, 성적 엄숙주의와 위선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몸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질과 관계 역시 달라졌음을 암시한다. 편지 속에서 남성은 격한 성적 욕망에 사

로 잡혀 있으며,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는 가운데 고뇌를 안게 되고, 그것을 풀 해법을 찾는 이성적이며 능동적 존재라면, 여성은 욕망의 얼룩조차 찾을 수 없는 순결한 천사로서, 수동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사물과 같이 그려져 있다. 이제 성욕은 남성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무성적 존재가 되었다. 여성은 성욕을 가진 육체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물로 전락함으로써 독립성조차 거세당했다. 욕망을 절제하다보면 어느새 천사를 확대하고 싶다는 남자의 고백은 성에 대한 극도의 죄의식이 여성에 대한 숭배와 훼손의 양가감정을 낳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욕망을 박탈당한 여성의 무력한 처지를 암시한다. 아프레 걸들은 이렇듯 우아하고 까다로운 연애의 시간을 통해 순결한 천사로 개종하기를 요청받았다.

5. 맺는 말

아프레 걸 담론은 봉건적 젠더 규범에 반발하는 도시 여성들의 근대적 주체성을 과잉성애화함으로써 가부장제에 대한 전복 의지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아프레 걸은 “육체적”, “타산적”, “개방적”⁴⁸⁾인 존재로 간주되어, 사회명사들은 현대여성에게 “프로그머티즘의 노예로써 자신의 앞날을 그릇치는 경박을 배우기보다는 물질에의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이지적인 여성”⁴⁹⁾이 되라고 충고했다. 기실 아프레 걸은 소비와 성의 주체로 등장한 근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관습적으로 성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이 남성의 것으로, 감성이 여성 젠더의 내적 자질로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러

48) 김동리, 『자이구출의 길을 역행』, 『여원』 57. 7, p.187.

49) 정병욱(고대 교수), 『무쇠라도 녹일 정열을 가져야』, 『여성계』 57. 1, p.63.

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기실 ‘아프레 기질’이란 낭만적 연애를 냉소하고, 수동적으로 남성을 기다리지 않으며, 부와 권력을 욕망하는 현대여성을 부정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50년대의 국가는 이렇듯 아프레 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듦으로써 전통적 가부장을 위시로 한국적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물질/현대/서양/남성 그리고 정신/전통/ 동양/여성이라는 분리된 가치 구조물질”를 구축함으로써 서구를 모델로 하는 경제 개발방식이 기존의 사회관계에 주는 위협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의 상실과 식민화된 민족, 사회의 공공선을 해치는 천박한 욕망과 개인주의가 아프레 여성의 몸에 각인되었고 여성 젠더는 개인성, 욕망, 소비, 섹슈얼리티, 비이성적 몰두 등 근대적 생산이나 가치와 대척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성평론가 정충량은 “전후파라 불리우는 여성에게 세상에서는 가장 악에 해당하는 모든 조항을 이들에게 부여한다”⁵⁰⁾며, 남성논자들에게 의해 주도된 아프레 걸 담론에 대한 메타비평을 시도했다. 그녀는 아프레 걸이 “대개가 낡은 도덕에 속박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사회적 장애와 자신의 빈곤에서 올바른 귀결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전후파여성이라 하겠다”⁵¹⁾고 함으로써 이들에게 과장스럽게 덧씌워진 사치와 허영 그리고 창부성의 이미지를 벗겨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충량 역시 아프레 걸 여성의 욕망에 담긴 전복적 의미를 읽어내는 데 인색했다. 기실 아프레 여성은 전통사회를 위협하는 왜곡된 서구문화의 추종자로, 위협스러운 이방인으로 과장되게 재현

50) 정충량, 『전후파 여성의 어제와 오늘』, 『여성계』 58. 9, p.73.

51) 정충량, 『아프레 여성의 정조관을 비판한다』, 『주부생활』 58. 9, p.108. 정충량은 『여원』의 인생상담코너를 맡았으며, 세 잡지 모두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남성필자들이 다른 시선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입장을 대변한 50년대의 유일한 여성평론가이다.

된 것과 달리 봉건적 규범에 회의하면서도 근대적 주체로 자립할 수 없었던 과도기 사회의 신여성이었지만, 근대적 여성 주체의 정립과 관련해 아프레 걸의 모색의 의미를 짚어본 경우는 없었다. 현대여성의 모색은 아프레 걸이라는 명명이 부여되는 순간 포르노화되었다. 그녀들은 전쟁의 허무와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식민지 근대성이 안겨준 불안을 자극하고 위무하는 상상의 산물이자, 시대적 소비재였다.

이렇듯 50년대 여성잡지는 전통적 민족국가의 경계를 붕괴시키는 침입자로 여성을 표상하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을 “알수없는 동경과 포근한 위로와 다함없는 갈모(를)”⁵²⁾를 자아내는 순결한 구원자이자 정숙하고 순수한 전통의 기호로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여성담론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정조는 생명이다’는 식의 노골적인 가부장제 담론이 숭고한 사랑과 연애의 에티켓 담론으로 진화하면서 지극히 전통적이면서도 서양 천사같은 순결하고 이타적인 여성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성잡지는 이질적인 가치들이 동시 거주하는 분열과 혼란의 증거였다. 공적 언설과는 달리 여성잡지는 서구적인 것, 즉 부유하면서도 섹시한 현대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월함을 선전하는 장르였다. 미국식 의식주, 미국영화 등 서구적인 것은 이상적 가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잡지는 서구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그로 인한 죄의식에 내몰리면서, 혹은 자기비하적 열등감을 은폐하듯 전통적 여성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내비쳤다. 기실 혐오스러운 아프레 걸은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양문화에 매혹된 자의 알리바이였다. 이를 증명하듯 아프레 걸을 비판하는 글들은 대개 영어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적으로 그녀의 육체를 부조함으로써 이 거부감의 이면에 매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52) 박두진, 『여성에게 영광있으라』, 『여원』 58. 3.

□

1. 기본자료

『여성계』, 희망사

-1952년 7월 창간호

-1952년 11월호

-1955년 1-12월

-1956년 1-11월호

-1957년 1-11월호

-1958년 1-6월호, 8-11월호

-1959년 1-4월호

『여원』, 학원사

-1955년 10월-1960년 12월호

『주부생활(여성생활)』, 주부생활사

-1958년 1-12월호

-1959년 1-11월호

2. 논문

장세진, 「전후 아메리카와의 조우와 ‘전통’의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한국 문학연구학회, 2005).

최정무, 「미국, 무의식의 식민화, 그리고 자기 분열」, 『당대비평』(2001. 봄호).

3. 단행본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전쟁과 사회 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김경일, 「1950년대의 일상생활과 근대성, 전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백산서당, 2003).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삼인, 2000).
- 박완서,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 2004).
- 이화형 외 편저,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국학자료원, 2005.)
- 정상환,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전쟁
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 루스 밀크먼 지음, 전방지·전영애 옮김, 『젠더와 노동』(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2001).

Abstract

The Postwar State-Leading Modernization
and the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for "Apre-guerre"
- aiming at the women's magazines, *Yeoseonggye*, *Yeowon* and *Jubusaenghwal*

Kim, Eun-Ha

This article aims to prove that the women are intermediary beings to solve the postwar conflict and lead national unification in the process of state-leading modernization through a discourse of "Apre-guerre" (postwar women). The Fifties is the times when the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direction for state modernization while healing the pains of war and settling the postwar social division. The modernization in Korea went through anti-modernization or re-traditionalization. The "Apre-guerre", the modern women are crucial to settle the contradiction and conflict taking place in the course of forming the Korean developing model.

As making a theory of social chaos or crisis through a discourse of Apre-guerre, the postwar women's magazines managed sexual desire and established the image of innocent women through a new sense of virtue, new theory of love. The Apre-guerre is a structure of discourse coming into the world in the process of being joined with vanity, extravagance, prostitute-ness, imitating of Western-style and egoism and so on into the body of modern women. In fact, a discourse of

Apré-guerre is an emblem that was made by envying towards the empire for colony people, abasing himself in the extreme and feeling his own superiority to others to conceal that. The emblem was formed by that an arm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me a new model for Korea to imitate since 1945 when the army had stationed in Korea. The women's magazines is a place where the post-colonial division was exposed. This article tries to combine both the role and characteristic of the women's magazines in fifties, as examining how they settled the secret conflict of least modern state and how they disclosed the division unconsciously.

Key words : Apré-guerre girl(postwar women), the women's magazines in fifties, *Yeoseonggye*, *Yeowon* and *Jubusaenghwal*, western modernization, feminine virtue and traditionalism, a theory of love and an ideal woman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